

올 한해 에듀테크 활용 성과 공유

전북자치도교육청, 성과 공유회 개최... 디지털 선도·에듀테크 시범학교 성과발표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4 에듀테크 활용수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년 에듀테크 지원 주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활용 촉진 및 정책 안착을 위해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에듀테크 시범학교 △에듀테크 연구회 △에듀테크 멘토링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단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성과보고회 첫째 날은 디지털 선도학교와 에듀테크 시범학교의 성과발표가 이뤄졌다. 창오초 배기웅, 다평선중 김해원, 전주효문중 고경숙, 다솜학교 박세운, 호남고 박정교 교사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성과와 사례를 발표했다.

또 에듀테크 시범학교로 영선고 오병학 교사가 에듀테크 시범학교 발표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의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둘째 날 오전에는 특별 강연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과 전북미래교육 수업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정환 한양대 교수가 '생성형AI 모델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김용진 (주)브레인아이이 대표가 '디지털기반 미래 핵심역량 신장 수업혁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4 에듀테크 활용수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이 26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후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혁신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리동남초 박주희·원전초 정이권·부안동초 김진주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인텔SFI 기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혁신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의 성과 발표

에는 전주효자초 박효주·전주초포초 허정수·정주시중 조정현·전주한일고 정지은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에듀테크 멘토링 부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 부스, 에듀테크 연구회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에듀테크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의 수업혁신과 학력신장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고등평생교육 체계 지속 가능성 논의

우석대, 성과 공유회 열어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6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학생·기업 모니터링단과 함께하는 '지역 고등평생교육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의 고등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특화 비하위 및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산·학·관 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와 지역 고등평생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행사는 우석대학교의 지역특화 비교과 교육과정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양향숙 군장대학교 LIfE 2.0 사업단장이 '비하위과정 브랜드화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양 단장은 성인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법 적용 사례, 학위·비하위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역량 강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6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학생·기업 모니터링단과 함께하는 '지역 고등평생교육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화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군장대학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LIfE 2.0 사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산립 조정원예학과와 '숲빛줄놀이 전문가과정(지도교수 김웅진)'과 심리운동·상담학과 '심리운동 역량강화 캠프(지도교수 김정수)', 창업컨설팅학과 '브랜드 ESG 경영(지도교수 이정희)' 등 학과별 비교과 및 비하위 프로그램 성과

와 운영 사례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번 행사는 지·산·학·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등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LIfE 2.0 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하위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 고3 학생 대상

'수퍼FESTAR'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입학처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퍼FESTA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예비대학생의 다양한 지식 습득과 사고 확장을 위한 교양 특강 △전주대학교 중앙연합동아리의 공연 △공연방송연기학과 및 음악학과와 뮤지컬 음악 특강 △수시 이후 주요사항 안내 및 정시 전형 설명 △학과 상담 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전주대는 수능 이후 고3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수퍼FESTAR' 프로그램을 통해 고3 학생들이 수시 등록 및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전공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 176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행동강령책임관 청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하반기 행동강령책임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 및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참여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 반부패 법령 및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8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에 담긴 △교육감과 교직원들의 책무 △갑질진단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 성장기

29일 '제2회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 개최

9개 팀, 20여명 교사 참여... AI코스웨어 적용 수업 등 발표

'제2회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 성장기 발표의 장이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AI코스웨어를 적용한 수업과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세계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개념기반 탐구학습 등 사례 중심으로 운영된다.

본선 경연에는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와 실천 과정을 보고서와 수업 동영상 심사, 학교 현장 실사 및 면접 등 예선을 거쳐 선정된 9개 팀, 20명의 교사가 참여한다.

9개 팀은 이날 수업 강연 심사, 참관객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업혁

신 대상' 2팀, '수업혁신 우수상' 7팀을 선정, 각각 교육감 표창과 수업연구지원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선에 오른 부안중학교 최호석 교사는 "수업 경험을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업혁신 발표대회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창의적 수업사례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우수한 수업사례들이 확산돼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획기적 전환점 마련

전북대 이용철 석좌교수팀, KATRD 국제학회서 우수 초록상

전북대학교 난치성 호흡기 치료제 개발 연구소 이용철 석좌교수(사진)팀이 최근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대회(KATRD International Conference 2024)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에



증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타 중증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신약 후보물질 등을 평가 등을 수행해왔고, 국내 최고 수준의 호흡기 질환 관련 우수 인프를 바탕으로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 맞춤형 기도 표적 치료제 개발 플랫폼도

23개국에서 1,000여 명의 호흡기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 호흡기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팀은 중증 천식 및 중증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난치성 호흡기 치료제 개발 연구소는 이용철 석좌교수와 전북대의대 전공용·정명자·김종승 교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재석·김도균 교수, 약학대학 채한정·민경현·강지현 교수, 수의대 어성국 교수 등이 참여해 국내 최초로 흡입성 난치성 천식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중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철 석좌교수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증 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폐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용철 석좌교수는 의학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회장,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호흡기 질환 연구 분야 권위자로, 국내외 연구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남권 대학 최초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 선정

전북대 원예생명공학실험실, 과기부장관 표창 받아

전북대학교 원예생명공학실험실(지도교수 강범창)이 호남권 대학 최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되며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 인증은 기존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중 더욱 법적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9개 연구실이 선정됐다.

이에 전북대 원예생명공학실험실은 연구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한 연구 절차를 확립했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위험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양오봉 총장은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성과는 전북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 더 많은 연구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전직원 대상 ESG 역량강화 연수

신지현 작가 초청 특강... ESG의 중요성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창초나래 시청각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ESG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9월 27일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연수 위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공공교육기관의 ESG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연수는 ESG 컨설팅 전문가 신지현 작가를 초청해 '공공기관 리더부터 실무까지 알아야 하는 How to ESG'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 작가는 ESG의 개념과 의의, ESG의 중요성, 공공기관에서의 적용법과 실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ESG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